

취임 한달 홍이식 화순군수 인터뷰

“반목·갈등 접고 군민 소통·화합 이끌겠다”

홍이식(52) 화순군수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4·27 재선거에서 10여 년 동안 지역내 갈등을 초래해 온 ‘부부군수’와 ‘형제군수’의 악연의 고리를 끊었던 홍 군수는 ‘군민 화합’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고 ‘화순 대통합’을 위한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취임 한 달이 지났다. 소감은. ▲지난 4·27 재선거는 그동안 반목과 갈등이 반복됐던 화순의 과거를 청산하고 분열된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거 이후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시간을 쏟았다.



가교역할을 해볼 생각이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공무원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인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맞은 선거로 공직사회도 많이 힘들었다. 몇 차례 선거 이후 인사보복 등으로 공무원 조직 내 상호 간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역대 군수 국정자문위원 위촉  
종교 지도자 중심 협의회 구성

어떻게 군민 화합을 이뤄낼지 구체적 계획은. ▲군민들이 지난 4·27 재선거에서 저를 군수로 뽑아준 것은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이제 민심통합을 해야 한다는 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합과 통합을 군 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일하겠다. 지역민심 통합은 소통과 화합에 있다. 선거가 끝난 뒤 경합을 벌였던 일부 후보를 만났다. 임호경 전 군수를 만나 화순을 화해시키고 소통하는 데 협력해달라, 좋은 정책도 제시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반기문 유엔 총장 재선 도전

“안보리 지지... 경쟁자 없어 연임 확실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6일(현지시각·한국시각 7일 새벽) 연임 도전의사를 공식 발표한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반 총장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의 첫 임기 5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연임에 성공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반기문 총장 2기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현재 반 총장은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및 거부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무총장직에 도전하겠다는 다른 경쟁자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편 가르지 않는 공직사회 조성  
관광·스포츠산업 메카 만들 것

의원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대의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의회다. 주민대표인 의회를 존중하고,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정책과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 집행부 독주자 아닌 의회와 동반자 관계를 함께해야 화순군이 발전할 수 있다. -화순군의 현안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 구상은. ▲현재 화순군은 백산산업 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생물 의약산업단지과 화순 전담병원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를 구축해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고, 앞으로 아시아 생물 의약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獨 “새싹이 장출혈성 대장균 주범 유력”

유기농 샐러드용 18종 의심

유럽을 강타한 장출혈성 대장균(EHEC) 질환의 주범으로 독일 북부에서 재배된 새싹들이 지목됐다. 독일 북부 니더작센 주 농업부의 게르트 린더만 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한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함부르크와 하노버 사이에 있는 월첸 지역의 한 유기농 업체가 생산한 새싹이 오염원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린더만 장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초기 조사 결과 이 농장에서 생산된 새싹들이 박테리아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수시간동안 드러난 징후들도 모두 이 농장을 지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elisia) featuring premium buffet and various dining option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Advertisement for 유전일식 (Yujeon Ilshik) featuring a buffet menu and dining environment. Includes menu items like 점심특선 17,000원 and contact information: 062-233-9911.